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님 <조아키노 아세레토, 캔버스에 유채, 1640년 경. 미국 카네기예술박물관 소장>

## 금주의 성화

예수님께서 예리코에서 티매오의 아들 바르티매오의 눈을 고치시는 장면이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단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씀만으로 그를 고쳐 주시지만, 마태오 복음서의 병행 구절에는 그의 눈에 손을 대셨다는 말씀이 나온다. 바로크 시기의 화가인 아세레토의 그림은 육안에 보일 턱이 없는 영적인 작용을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마치 빛이신 예수님께서 장님 바르티매오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시는 듯하다. 경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 † 오늘의 전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 10,46-52 참조)

사람들과 제자들이 아무리 말려도 장님 바르티매오는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만큼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신앙의 눈을 뜨긴 했지만 아직 잘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악습을 고치는 것도, 덕행을 실천하는 것도 오락가락합니다. 혹시 바르티매오만큼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제1독서 예레 31,7-9    제2독서 히브 5,1-6    복음 마르 10,46-52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진짜 소경



박병규 요한 보스코 신부 | 선남본당 주임

오늘 복음을 묵상하다, 섬뜩한 기분이 밀려와 잠시 성경을 내려놓는다. 이렇게 살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다. 주님, 주님 부르다고 다들 하늘 나라 못 들어 가듯이 주님 옆에 마냥 앉아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듯 싶어서다.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 ... 그는 거지다. 그는 소외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다. 간절한 외침, 딱 그것 만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를 구원 하셨다. 주님, 주님 부르면서 예수님 옆을 지키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정 받은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리코에 들어가고 나갈 때, 예수님 주위에는 늘 그분 곁을 지키던 제자들이 있었다. 예수님이 가시는 어디건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여과 없이 보고 듣고 느꼈던 이들이 제자들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마르코 복음은 이 제자들을 다루는 데 있어 마뜩찮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제자들을 세속적 영광의 자리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등장시키고(마르10,37), 수난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까지 해대는 몰염치한 모습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마르8,32). 사실, 마르코 복음의 제자들은 원래 그랬다.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마르6,52), 줄곧 예수님 옆에서 보채는 이들이었다. 나중에 ‘좋은 자리’ 하나 주십사하고 보채는 이가 예수님 곁을 지키던 제

자들이었다. 진짜 소경은 어찌면 예수님을 보면서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 바로 그들이었다.

세상 안에 예수님을 소개해야 할 책무를 가진 우리 교회가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그래서 세상의 간절한 호소를 즐겨 들으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면, 마르코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아둔한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을까...: 교회가 못 보는 예수님, 어찌면 이 세상이 먼저 보고 있을지 모르고, 교회가 간절히 부르지 않는 예수님, 어찌면 이 세상이 애타게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세상에 먼저 손을 내밀어, 세상이 참된 믿음의 자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른다.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이 세상에 벌어지는 온갖 슬픔과 억울함과 억압의 호소를 듣고자 애를 쓰는 것,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수난을 깨달아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고달프고 힘든 일”이다. 세상에서 힘들고 아파하는 이들 곁에 함께 해야 해서 고달프고, 그들의 슬픔 안에 기쁨을 심어줘야 해서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께서 그리 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용기를 내자.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요한16,33). **박병규**

## 신앙의 해 특집 -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 ①

## 공의회란?

최석환 요셉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교황님께서서는 신앙의 해를 맞아 교우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문헌을 공부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공의회 문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작은 지면에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 신앙의 규범이자 길잡이인 공의회의 가르침에 대해 할 수 있는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의회”는 신앙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윤리 및 교회 생활과 관련하여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주교님들의 공식 회의입니다. 『교회법전』에 따르면, 가톨릭교회는 주교님들의 회합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교회의와 주교대의원회의, 그리고 공의회입니다. 주교회의는 한 나라 또는 특정 지역에 있는 주교님들의 상설 협의체로서 우리나라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CBCK)’가 있습니다. 주교시노드라고도 하는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님께 자문을 드리기 위한 주교님들의 회합입니다. 바로 지금 로마에서는 제13차 주교대의원회의가 교황님의 주재 하에 열리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신앙전수를 위한 새로운 복음화”입니다. 공의회는 협의체인 주교회의나 자문기구인 주교시노드와는 달리 회의에 참가하는 주교님들이 투표로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의입니다.

공의회는 지역공의회와 세계공의회로 나눌 수 있는데,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열리는 지역공의회와 달리 세계공의회는 말 그대로 전 세계 모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참석하신 제7대 교구장 서정길 대주교님

든 주교님들이 참가하는 회의입니다. 보편공의회라고도 하는 이 세계 공의회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결의를 승인하는 것은 모두 교황님의 권한입니다. 모든 주교님들은 교황님을 단장으로 하는 주교단에 속하며, 교황님의 부름을 받아 세계공의회에 참석하여 투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세계공의회에서 주교님들이 결정하신 내용은 교황님의 승인을 받아 헌장, 선언, 교령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로 공포됩니다. 세계공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세계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순명(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의 공식 가르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래, 모두 스물한 번의 세계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바로 그 스물한 번째 세계공의회입니다. **각주**

## 청소년 사목의 현장

# “학교에서 교육 임무를 맡은 저 모든 이의 소명은 막중하고도 아름답다.”

이영동 치릴로 신부 | 교구 학교복음화 담당

“모든 교육 수단 가운데에서 학교는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학교는 그 사명에 따라 끊임없는 배려로 지적 능력을 배양하는 가운데, 올바른 판단력을 기르고, 앞선 시대에서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가르치며, 가치관을 증진하고, 직업 생활을 준비시키며, 다양한 환경과 자질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교우 관계를 맺게 하여 상호 이해의 정신을 길러 준다. … 그러므로 부모를 도와 인간 사회를 대신하여 **학교에서 교육 임무를 맡은 저 모든 이의 소명은 막중하고도 아름답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그리스도인 교육에 관한 선언, 『교육의 중대성』)

공의회 말씀처럼 교직은 막중하고도 아름다운 소명입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가르치고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고 증거하는 소명이기에 막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교구의 초·중등 신자 선생님들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자 초·중등원 사도직 협의회와 중등교원 사도직 협의회를 결성하여 회원 각자의 성화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및 본당 그리고 초·중등교육의 복음화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 또는 일과 중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복음나누기를 하며 신앙의 사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학생들을 지도하고 그들이 어려운 학교생활에서도 신앙으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사모임 때마다 제자들 가운데 사제 성소자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생님의 말씀처럼 선생님들은 ‘사람 낚는 어부’,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뽑으실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낚던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사람 낚는 어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 낚는 어부’ 곧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정말 물 반, 고기 반인 곳, 학교에서 그물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고 귀찮고 힘들어서, 그러나 이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어느 교사의 다짐)

시대에 따라 중요하게 부각되고 요청되는 사도직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필요한 사도직이 바로 초·중등 교직원사도직입니다. 이 나라의 자녀들, 청소년들을 위하여 ‘사람 낚는 어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주**

초등교원사도직협의회: [cafe.daum.net/shalom007](http://cafe.daum.net/shalom007)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 [cafe.daum.net/deaguapostle](http://cafe.daum.net/deaguapostle)

햇살 담은 이야기 - 마음으로 읽는 삶의 단상

## 선택과 결단

2차 세계대전 때 윈스턴 처칠은 그런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나치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한 영국 비밀정보부는 독일군이 코벤트리라는 지역을 곧 폭격할 것임을 알아냈습니다. 만약 처칠이 코벤트리 일대의 주민을 대피시킨다면 엄청난 인명 손실을 막을 수 있겠지만, 독일군은 자기들이 사용하던 암호의 비밀이 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처칠이 주민들을 대피시키지 않는다면 향후 해독된 암호를 통해 독일군의 작전을 미리 알 수 있겠지만, 많은 민간인이 폭격에 희생될 것이었습니다. 결국 처칠은 독일군의 폭격 계획을 알고서도 그것을 비밀에 부치고 민간인들을 대피시키지 않습니다. 처칠의 이 선택은 나중에 연합군의 최종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리는 결단의 대부분은 아마 처칠이 내려야만 했던 결정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뒷감당을 해야만 하는 입장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의 회고를 들어 보십시오.

“ 학생 시절에 이모가 구두를 맞춰 주셨습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구두 한 켤레는 굉장히 큰 선물이었죠. 난생 처음 가 본 구두방에서 주인은 제게 ‘동근 코로 해 줄까, 모난 코로 해 줄까?’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구두방 주인은 삼일 후에 마음을 정해서 다시 오라고 말했습니다. 삼일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그 구두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저에게 아직 정하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했더니, 그럼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이틀 후에 신을 찾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틀 후에 완성된 구두는 기가 막히게도 한 짝은 모난 코, 한 짝은 동근 코인 짝짝이었습니다. 구두방 주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결단을 못 내리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가 자네 대신에 결정을 한다네. 지금 고치지 못하면 앞으로 평생 그럴 걸세.’” [27]

### ■ 금주의 성인 사도 성 유다 타대오



#### 사도 성 유다 타대오 (10월 28일)

유다 타대오 성인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분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과는 다른 분입니다. 루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오지만 마태오 복음과 마르코 복음에서는 타대오라고 불린다. 성인께서는 사도 성 시몬과 함께 열형당원 출신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페르시아에서 순교하셨다. 성인께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이들의 수호자입니다. 타대오라는 이름은 ‘마음이 크고 넓다’는 뜻이며, 현재 우리 교구의 교구장이신 조환길 대주교님의 세례명이기도 하다.

■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개원 30주년 기념행사



성모자애원 마리아의 집 개원 30주년 기념행사가 10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마리아의 집 강당에서 있었다. 이 날 행사는 4대리구장 전채천(암브로시오) 주교대리 신부님의 주례로 봉헌된 감사미사에 이어 원유술(야고보) 신부님의 축사와 시상식,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 옥잉애 여사 한국오심 50주년 및 팔순 축하연



옥잉애 여사 한국오심 50주년 및 팔순 축하연이 10월 20일(토)에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교구청 내 꾸르실로 교육관 성당에서 교구장 대주교님의 주례로 감사미사가 봉헌되었고, 이어서 교육원 대강당에서 축하연이 열렸다. 옥잉애 여사는 가톨릭소화보육원을 설립하여 50년 간 아동복지사업을 위해 헌신해 왔다.

■ 2012년 본당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2012년 본당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가 10월 21일(일) 오전 10시부터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날 행사는 교구 사회복지회 사무국장 이정효(예로니모) 신부님과 각 대리구 담당 신부님들의 공동집전으로 봉헌된 미사에 이어 장기자랑과 미니올림픽 순으로 진행되었다.

교구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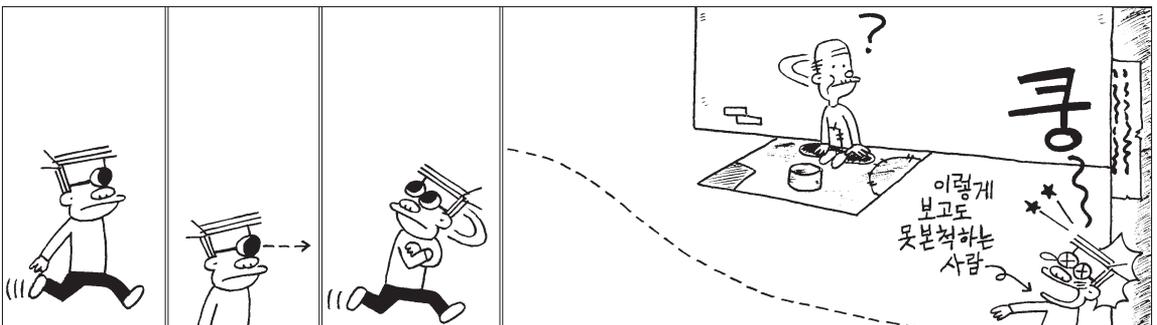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1월 3일 토요일은  
(故)박병원 필립보 신부님  
10주기입니다.

- ▶ 제2차 교구 시노드 폐막미사  
\_ 일시: 10.28.(일) 13:30, 성김대건기념관
- ▶ 상모성당 10주년 및 견진  
\_ 일시: 11.4.(일) 10:00

눈 뜬 장님이란

박성규 엘리지오



## 성소 | 피정

### 예수회 성소모임

일시: 11.10(토) 16:00  
 장소: 관구본부 (서강대 옆)  
 주제: 하느님의 가난한 사람들  
 대상: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589-9880

###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성소모임

일시: 매월 둘째 주일 14:00  
 장소: 과천본원  
 문의: 김라우렌시아 수녀  
 (010)5449-3166

### 한티순교성지 예수마음기도 1일 피정

일시: 11.5(월) 10:30~16:30  
 강의: 권민자 수녀 (성심수녀회)  
 참가비: 회원은 무료, 비회원 5천원 (중식대)  
 신청: 11.4(일)까지, 출발: 5일 성모당  
 문의: (054)975-5151

###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일일 대피정

일자: 10.29(월), 대상: 누구나  
 장소: 가톨릭교육원 대강당  
 강사: 유시찬 수사신부 (예수회)  
 문의: (010)5493-1819

### 아프리카 들꽃마을 후원회

### 아가페 월피정

일시: 11.7(첫 수요일) 13:30  
 장소: 꾸르실로교육관

지도: 최영배(비오) 신부  
 문의: (010)4804-7574

###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1.10(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성모님과 죽음의 은총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12.8(토), 루르드 샘물 증정

### 고3 및 수험생을 위한 피정

기간: 11.17(토)~18(일)  
 장소: 청통수련원  
 마감: 10.29(월)까지 (선착순 90명)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3

## 교육 | 모집

### 미디어포럼 지도자 교육

기간: 10.30(화)부터 7주 10:00~12:00  
 장소: 바오로딸서원, (010)2658-5185  
 내용: 미디어의 이해와 포럼, 제작교육  
 회비: 10만 원 (요일,시간조율가능)  
 입금: 국민 802637-95-100667

### 작은예수회 창립28주년 송년감사제

일시: 11.1(목) 11:00~16:30  
 장소: 경기도 현리 작은예수회  
 강론: 배영진신부, 박성구신부  
 교통편: 지역별 출발  
 문의: (02)777-6444

### 내적여정(에니어그램) 1,2단계

기간: 11.9(금) 11:00~11(일) 14:00  
 12.7(금) 11:00~9(일) 14:00  
 장소: 올리베따노수도회 (고성)  
 문의: 안젤로수사, (010)3664-3986

### 성 음악교실 1기 학생 모집

첫모임: 11.11(일) 14:00  
 과목: 그레고리안 성가  
 강사: 박대중 신부  
 문의: 프란치스카눔, (070)4266-0045

### 살레시오 2013 겨울 신앙학교

중고: 1.5(토)~6(일)/12(토)~13(일)  
 초(4-6년): 1.8(화)~9(수)/17(목)~18(금)  
 장소: 살레시오 청소년 수련원  
 주제: 항상 기뻐하십시오  
 문의: (042)584-0654, 선착순

### 경주영어마을 영어캠프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1.7(월)~26(토) 3주간  
 대상: 초3~중2, 주관: 대구가톨릭대학교  
 접수기간: 11.19(월)~26(월)  
 인터넷접수: www.gev.ac.kr(선착순)  
 문의: (054)777-8000~5

### 젊은이 모임 옛 멤버를 초대합니다

(70년 후반~80년 초) 범어동에서 활동하셨던 성모기사회 옛 멤버를 초대  
 장소: 곤빈뜰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문의: 박상규(마리아야고보)신부  
 (010)5380-8615

##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월례미사

11월 3일(토)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카눔 (월배성당 뒤)

**백두정형외과**  
 SINCE 1978  
**어깨 관절경 수술전문**  
 정형외과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덕두(아오스딩) 배상근(베드로)  
 소아정소년과/신생아재수전문의/의학박사/원장  
 배상영(미카엘라) www.baekduos.com  
**425-5919** 평일 09:00~19:00  
 등인차안센터 건너편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 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연역 2번 출구

**수내과**  
 당뇨 / 고혈압 / 신장질환 전문  
 공단건강검진 / 위, 대장 내시경  
**인공신장실**  
 경북대병원 외래교수 김 건 현(라파엘)  
**상인역 ☎(053)642-7575**

**서정희 피부과**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박의현 구심내과** 심장전문의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송월타올**  
 \* 인 쇄 무 료 \*  
 이영용(베드로), 심옥섭(미카엘라)  
**☎ 010-9431-3276, 629-0745**  
 - 반찬, 제사음식 헤드업니다 -  
 대명2동 1995-1번지 교대 앞 연선시장 내

**공피부과**  
 각종 피부질환, 아토피, 여드름 흉터  
 기미 및 레이저 클리닉 운영  
**T.053-710-0710** 피부과 전문의  
 계명대 동산의료원 외래교수  
 원장  
**팔달신시장 옆 덕인빌딩 5층**  
 (주차장 완비) 공수득(가브리엘)

**JINSUNG Architects & Interior**  
**진성건축**  
**건축사 · 인테리어 사무소**  
 건축설계/인테리어 시공 및 상담  
 대표/건축사 성 호 근(다니엘)  
 효목동 효동초등학교 입구  
**T.017-242-7927, 053-952-7927**

**코리아알트만**  
**결혼평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틸리아)  
 법원방향  
 코리안 뉴영남  
 아파트만 동 10  
 빌딩 4  
 그레이드  
 호 텔  
 황금네거리  
 지하철 2호선 범어역 4번 출구 법원 방향  
**TEL 743-4488 FAX 744-1594**

### 위령의 날 미사

- 11.2(금) 10:00 교구 성직자 묘지 (집전 : 교구 총대리 이용길 신부님)
- 11.2(금) 11:00 군위 묘원 (집전 : 조환길 대주교님)
- 11.2(금) 11:00 범물동 묘원 (집전 : 교구 사목국장 박영일 신부님)

### 행사 | 모임

#### 위령의 날 미사안내

일시: 11.2(금) 11:00

장소: 비산성당 낙산묘원

집전: 본당신부 나경일(펠릭스)

#### 제12회 가톨릭사친가회 가을사진 전시회

기간: 11.1(목)~5(월), 교구청 잔디광장

### 교육 | 모집

#### 104차 선택 주말

기간: 11.9(금)~11(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미혼 남녀신자, 예비자(50명)

신청기간: 10.8(월)~11.2(금)

문의: 이상호 사도요한 (010)4403-0265

<http://cafe.daum.net/daeguchoice>

#### 전례꽃꽂이연구회 강좌반 모집

기간: 10.15(월)~11.20(화)

강좌반: 초, 중, 고급, 전문가반

문의: (010)2506-6259

#### 2013 효성초등학교 신입생 모집

전형: 11.19(월)~23(금) 9:00~16:30

자격: 2006.1.1~12.31 사이에

출생한 대구광역시 거주 아동

방법: 컴퓨터추첨, 문의: 720-5500

<http://www.dg-hyoseong.es.kr>

#### 13학년도 전기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모집

접수기간: 10.29(월)~11.9(금)

분야: 22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 · 특수대학원(경영,디자인,신학,  
보건의료,사회복지,국제·다문화,음악)

접수기간: 10.29(월)~11.9(금)

문의: 850-3637 / 660-5512(특수)

<http://www.cu.ac.kr>

#### 대구시청소년수련원 필리핀 영어연수

일자: 12.29(토) 출발, 5주

대상: 초4~중3, 선착순: 50명

문의: 656-6655 (ARS 4번)

성인 해외봉사 · 어학연수 모집 중  
문의: 593-1273

#### 가톨릭근로자회관

#### 11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1.1(목) 19:00~20:30 월3만원

과정: 창세기, 마태오 (화, 목 저녁)

문의: 253-1313 / (010)2578-5535

### 채용

#### 상지유치원 버스기사 채용

서류: 교적 사본, 자기소개서(자필),  
이력서, 관련서류 등

마감: 11.16(금) 까지

문의: 558-4422

### 안내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 · 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www.holyjac.or.kr](http://www.holyjac.or.kr)

#### 2013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순번추첨방식을 통해 접수합니다. (대기 번호표는 없음)

순번추첨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1차 추첨**은 사전신청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제출하신 업체에 한해 진행합니다.  
1차 순번추첨 일시: 11.26(월) 09:00,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사전신청 기간: 10.29(월)~11.9(금),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2차 추첨**은 추첨 당일에 서류를 제출하신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2차 순번추첨 일시: 11.26(월) 13:00

제출서류: 1. 교적 사본 2. 본당신부님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사업체인 경우 추가로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추천서

광고비는 전액 계좌이체로만 받습니다. (접수일부터 익일까지)

업주가 냉담자이거나 신자들의 유익을 해치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랑각시 결혼정보**  
전문직 · 초혼 · 재혼 · 만혼 (20년경력)  
평양여성고 결혼하세요!  
이 원 교(요안나) | 서울회원 확보  
**(053)471-0707 · 016-817-8888**  
<http://www.sk1004.co.kr>  
남구 봉덕동 영대병원 사거리

**강남피아노사**  
중고피아노 고가 매입  
조율, 운반, 수리, 매매  
각종 악기 업그레이드 판매  
☎ **010-3541-8194**  
**053)423-7009**  
김 스테파노 (교우님 우대)

**대구 안과**  
마이크로 라식 · 에피 라식 · 알티스 렌즈  
백내장 수술 · 녹내장 · 사시교정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당), 조영수(다미아노)  
☎ **(053)551-2233**  
서부정류장에서 본리네거리 방향 300m 좌측

**윤영희 성형외과**  
Dr. Yoon's Aesthetic Clinic  
의학박사/전문의 윤 용 현(바오로)  
서울백병원/영남의대 외래교수  
영남대학교병원 사거리 앞  
**T. 053)655-8686 / 8680**

**전문과외**  
수학, 영어, 국어, 과학, 논술  
(수리, 언어, 과학)  
고등부 · 고수능 · 재수생 · 중등부  
◆ 서울권 대학  
◆ 과목별 전공자 수업  
1:1 맞춤 방문수업 원장 주영혜(안젤라)  
신뢰와 믿음의 서울교육원  
**T. 256-6300**

"어르신들의 행복을 위해 안심원이 함께합니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사회복지법인 **안심원**  
**성가요양원**  
**성가어르신복지센터**  
입소 성가요양원 **054)976-8122**  
문의 성가어르신복지센터 **054)976-8123**  
<http://www.sug.or.kr>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사회복지법인 서정길 대주교재단  
**대리사소비센터**  
수익금 전액은 사회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청과 · 아채 · 선어 · 청육  
신선 · 가공식품 · 공산품 · 생필품  
생활 · 패션잡화 · 수입주방 · 수입가전  
**765-1500** (어린이회관 맞은편)  
대표이사 장영일(그리산도)신부